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
라보자"(히브리서 12장 2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115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41명에게 전도상 수여

믿음·소망·사랑상으로 구분 실시 개인1위는 박상준집사 차지

교구위원회(위원장/우기전장로)는 지난 주일(4월9일) 저녁 찬양예배시 1/4분기 개인별 전도상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제일 많이 전도한 자는 9명을 인도한 박상준집사이며, 믿음상을 받은 교구는 1교구, 3교구, 4교구, 11교구, 12교구, 13교구이다.

개인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믿음상=조계진(1교구), 하두연(3교구), 김현승(4교구), 박은미(11교구), 박상준, 손순애(12교구), 박윤석(13교구)

▲소망상=염경자(1교구), 오말녀(3교구), 임옥분(4교구), 이경혜(5교구), 신영순(13교구)

▲사랑상=남경자, 최상조(1교구), 박숙경, 장예선(2교구), 김홍찬(3교구), 김현주, 박남수, 최영애, 이강옥, 방계운, 장예희(4교구), 이춘미, 이정숙(5교구), 안영순(6교구), 김애경, 전숙영, 강진택, 유금화(7교구), 김용보, 이순옥(8교구), 김학천(9교구), 배복진(10교구), 방남희, 조정백, 이지영(11교구), 조인제, 정위식(12교구), 김봉순, 김순호(14교구). (합계 41명)

산상기도회가져 제2교구 주관으로

제2교구(교구장/김원선장로, 지도/김학진

목사)는 지난 4월4일 충현기도원에서 제2회 산상기도회를 가졌다.

1백10여 명의 교우가 참가한 동 기도회는 1부 예배, 2부 식사 및 친교, 3부 협력구역별 찬송가 경연대회 등의 순서로 집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회 모임 이후 두번째로 가진 산상기도회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산상에 올라가 그룹별 기도회와 개인기도회를 가졌으며, 특히 교구산하 지역부흥 위한 문제점을 내어놓고 특별기도의 시간도 가졌다.

동 산상기도회는 격월로 갖고 있다.

선배가정 초청좌담회 모임

새가정부(부장/박승준장로)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선배가정 초청좌담회」를 오는 주일(23일) 오전11시 소석관 201호 새가정부실에서 열린다.

초청된 가정은 백운홍, 박성명, 박찬섭 세 분 집사 가정인바 해마다 좌담회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 성숙, 재정관리, 부부간의 갈등이해, 자녀양육 등 폭넓은 대화로 많은 유익을 가져온바 있다.

이번 좌담회의 진행은 정선현 집사 담당으로 교인 누구나 참관을 바라고 있다.



▲ 교구위원회는 지난주일 찬양예배시 전도상 시상식을 가졌다.
(위임목사가 믿음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



▲ 장로들이 매주일 오후5시 당회실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감사: 신복윤협동목사)

카메라초점

교회봉사에 여성도의 역할 매우 중요

여전도회협의회 「현대교회와 여성의 위치」 주제로 특강

여전도회 협의회는 지난 4월 7일 오전10시30분 갈릴리홀에서 여성도 특강을 가졌다.

「현대교회와 여성의 위치」란 주제를 내걸고 매월 첫번째 금요일마다 개최될 여성 특강은 「교회봉사」란 제목으로 이종윤위원장의 강의가 있었다.

1천여명의 여성도가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①봉사의 원리, ②봉사의 필요성, ③교회 봉사의 원칙과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

이날 강의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 봉사하고자 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며 어떻게 봉사해야 좋을지 막연해진다. 이때 유익한 교회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교회봉사의 원리적인 면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1. 봉사의 원리

초대교회는 말씀전하는 일과 구제를 교회봉사의 두 가지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더 효과적인 말씀 전파를 위해서, 더 효과적인 구제 사역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봉사의 초점이다. 영어의 Service가 봉사와 예배를 동시에 뜻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의 봉사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심정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봉사는 자원으로 마음으로 보수나 대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2. 봉사의 필요성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므로 봉사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희생과 헌신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자

는 곳이므로 봉사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될 수 있는 한 전임직원의 수를 줄이고 가능한한 참여하여 조금씩 봉사하는 교회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되며 교인들의 신앙성장의 면에서도 이익이 된다.

3. 교회봉사의 원칙과 태도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해야 한다. 여기에서 은사라 함은 선천적으로 받은 것뿐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받고 경험 쌓아 경력을 갖게 된 것도 포함된다.

교회봉사를 함에 있어서 열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철저히 개발하여 각각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할 때에 교회에는 덕이 되고 본인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각각 자기의 일을 하되 타인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의 의견

을 존중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4. 결론

교회봉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바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되 절제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한국교회 성장연구원 1학기종강, 5월부터 제2학기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은 전국목회자세미나 제1학기 공부를 4월 17일 마감한다.

1학기에 등록한 목회자는 1,207명으로 밝혀졌고, 특히 이날은 12시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본교회 장로들이 정성들여 마련한 식사가 선교관과 소석관 사이의 충현광장에서 가든파티 형식으로 진행된 예정이다.

지상강단

본문 / 삼상 7:3~12

이스라엘 백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평안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고난의 교차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의 백성들로하여금 자신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잘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이방인의 잡신인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풍요로운 남산 「바알」과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해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민족의 절개와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아름다와 보이는 음란한 여인들의 자태에 넋을 잃었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우상 잡신까지 함께 받아드렸습니다.

육적간음은 필연적으로 영적간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영적 간음자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자신들의 범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한 후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즉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나 교회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마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말씀보다 인간적인 세속화 앞세우면 안돼
에벤에셀의 하나님찾고 회개·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취미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방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궁극적으로는 영적 간음자가 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제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념이나 사상을 앞세우는 교회는 점점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속과 타협하며, 거룩을 상실한 영적 간음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간음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외면 속에 블레셋의 침략으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죄를 범했다 할찌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로 공격해 왔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과 더불어 쫓겨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뢰를 발하니 블레셋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랐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마음놓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 치 육적, 영적 간음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환난과 고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슬픔과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찌라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온 교회가 에벤에셀의 단을 쌓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원길(목사·제7교구지도·장년2부지도)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께 향한 신앙고백과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에 대한 헌신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요즘 교회당이 한창 붐판장과 함께 깨끗한 환경정서를 위한 청결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어느 한모습인들 성도들의 봉사없이 되는 일이 있으리요마는 교회학교 부장을 맡고있는지라 매 주일 아침 남모르게 봉사하는 한두분의 교사의 얼굴이 떠오른다.

장로칼럼



봉사...

무급무감(無給無感)

유급유감(有給有感)

윤성철
(장로·유년부 부장)

교회당 내의 청결에 관심갖는 것도 봉사정신 떨어진 휴지 한장 줍는 것이 봉사의 실천이다

그 선생의 이름과 직분은 잘 모르지만 내 눈에 비친 그분의 봉사는 남보다 한 삼십분 일찍어서 사무실의 먼지를 쓸고 걸레질하고 예배준비를 하는 일이다. 혼자서는 더이상도 무리일 것이다. 그분의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뒤에 비쳐지는 수십명의 다른 얼굴을 생각나게 한다. 이제는 한두사람의 헌신적인 봉사만으로는 대가족이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파트타임(?)처럼 된 봉사제도 속에서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봉사의 요령을 필요로 하게됐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봉사자들은 힘에 부쳐 쓰러지게 된다. 아마도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여 교회는 최소한의 유급으로 교회일의 주요부분을 봉사토록 하기도 한다. 하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업무의 한계요, 손과 시간의 한계이다. 이러다보니 안타까운 것은 봉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요즘 강조하는 환경청결 문제이다.

유급의 봉사자는 해도해도 끝없는 일에 한숨짓고 봉사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더구나 말은 일이 무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주일의 소석관 복도 구석구석에 쌓인 쓰레기더미는 교인들의 눈에는 무감각해진 지 오래인 것 같다. 적어도 주일의 이부분만은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흔한 말도 비유가 안된다. 그저 「방치」 그대로인 것이다. 단적인 교회교육의 현장이다.

오늘의 교회 봉사는 지적봉사, 물질적봉사 쪽으로 기울어지고 소위 손에 먼지묻는 봉사는 도외시되고 있지 않은가 싶다. 테이블 위에서의 봉사만이 눈에 보인다면 그 밑에 떨어뜨린 휴지통은 누가 치워져야 하는지, 이제 우리의 봉사자세를 새롭게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교회당 내의 청결에 관심을 갖는 자체가 봉사정신이다.

떨어진 휴지한장 줍는 것이 봉사의 실천이다.

특히 소석관의 청결은 교회교육의 기초다.

더불어 함께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일 것이다.

교회의 봉사에 무급의 봉사자라 무감각

하고 유급의 봉사자에게 유감이 있어서야

표어 및 상징마크 공모 발표

一. 상징마크 · 당선작 없음

一. 표 어 · 당선작 없음

· 가작 2점

하나로, 세계로, 주께로

(4교구 4지역 양지1구역 엄복섭 성도)

사랑과 감사로 승리를!

(교회학교소년부 교사 김보연 성도)

一. 시 상 · 4월23일(주일) 찬양예배시

관심있는 많은 성도의 응모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천올림픽조직위원회

되겠는가.

쉽게 봉사할 수 있는 휴지통의 배치도 적절했으면 좋겠다.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위임목사는 지난 4월3~5일 화성교회당에서 개최된 총회(개척)교육부주최 제5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에서 「한국교회 성장과 위기」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교회교육연구위원 제4차 모임을 4월14일 오전7시30분 선교관 제307호에서 주관했다.

소년부 찬양대 수련회

소년부(부장/노문환장로)는 지난 4월4~5일 충천기도원에서 찬양대수련회를 가졌다.

영광과 승리와 환희의 큰잔치

충현올림픽

연합교구형성 팀명칭 결정, 준비작업에 박차

조직위원회 만점대운동회 위해 성도들의 참여촉구

모 세 팀	1, 7, 13교구
엘리아팀	4, 5, 8, 11교구
베드로팀	3, 6, 10, 12교구
바울팀	2, 9, 14교구

서울올림픽의 막은 내렸지만 충현올림픽의 막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영광과 승리와 환희의 큰잔치인 충현올림픽이야말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대합창이요 할렐루야의 절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현당의 역사로 영광을 돌린 충현의 2만여 성도가 한 날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이 주신 건강한 체력을 통해서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박진감 넘치는 게임과 레크레이션을 통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됨을 확인하는 잔치 중의 잔치라 할 것이다.

별써부터 기대에 찬 시선이 집중되는 이번 충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오진국 장로)에서는 사제의 전문가와 이미 조직된 위원들의 노력으로 계획이 완료되어 지난 4월2일 각교구(14) 교구장, 교구지도 남여교역자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충현올림픽개최에 따른 계획을 위한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별표와 같이 4개팀의 명칭(모세, 엘리아, 베드로, 바울)발표했으며 4개팀 조직이 확정되었다.

충현올림픽 팀편성 조직표

팀명칭	모 세			바 울		
팀색채	빨 강			청 색		
교 구	1	7	13	2	9	14
교역자	김해규 장영자	이원길 유순화	윤용규 장혜순	김학진 김주아	이세열 정연희	김광석 현정남
교구장	오정현	강모용	이창호	김원선	송기홍	마성락

베 드 로				엘 리 아			
초 록				노 랑			
3	6	10	12	4	5	8	11
송태근	김영구	이양우	김성운	김준태	김장근	김동열	김익경
구명신	김정순	김정자	최순복	임태주	정복인	김경성	최명자
오진국	강순용	강은원	김재명	이웅선	이종국	박철훈	김은호

팀의 고유색채도 결정되었으며 각팀의 조직도 인선이 완료되어 구체화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척되며 보이지 않은 선의의 금메달을 향한 전략구상이 한창이다.

모세팀의 단장/남선우장로, 부단장/강모용장로, 총감독/이창호장로로 라인·엮이되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9일 대회장소인 정신여고를 답사하여 주차장시설, 경기장안팎을 살펴 제반준비에 착수한바 있다.

5월12일은 충현 햇불이 떠오르는 총화합의 날- 충현올림픽이 기다려진다.

지난 주간에도 각부서별 행동요령 등이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기획, 행정 분과는 주제와, 표어와 기도제목, 그리고 행사 준비 문제를, 봉사분과는 충현차, 숙소마련, 주차장안내, 요령을, 동원분과는 전교인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방안마련, 그리고 홍보분과는 효과적인 홍보전략 등을 계획서를 만들어 의견개진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몇차례의 논의와 행동지침이 마련되면 집행단계에 이르게 된다.

계속적인 기도부탁을 바라고 있다.

초청전도대회 낙수

◇미래세계의 지도자 초청전도대회 초청잔치치고는 그 이름부터가 긍정적이요 운영과 계획이 맘모스적이었다.

보다 많은 기도의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PR홍보와 학교간의 유대, 학생 교사간의 맨·투·맨전략은 농구에서의 「올·코트·프레싱」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에 볼 수 없던 대단한 본격적 큰대회를 치렀음이 분명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도곡동의 「단대부고」에 종교반이 신설되기도 했으며 고등부 지도 목사이신 김광석목사께서 동교의 토요일마다 집회를 약속하기도 하여 학원복음화의 씨앗이 이곳 저곳에 뿌려진 서곡이 울려 퍼진 것이다.

◇당초 계획 당시에는 3시 예정이 1시로 변경됨에 따른 사정이 있었지만 목표 6,000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지만 결신자 800명의 수확은 어찌 주님만 기뻐하셨을까. 모두 감사의 연발이 그치지 않는다.

◇너무나 알려진 델린트 강석우성도의 간증- 10여분의 짧은 시간속에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을...」고백하며 찬양하는 이면에는 오늘의 신앙성장이 있기까지 「충현시무권사이신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의 응답이라고-」

로이스와 유니케와 디모데- 신앙3대처럼 계속 이어지길-

◇교육위원전원과 장로들의 안내, 그리고 기도속에, 대학부 형님들의 자원봉사한 안내역, 어느 성도는 2층에서 연필 들고, 이곳 저 곳 결신카드를 쓰는 새 신자들을 연신 싱글벙글하며 뛰는(?) 기쁨을 보는 기자의 눈에는 감사의 눈시울마저... 충현 고등부의 새아침은 밝아왔다.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계속 자라길 기도할뿐.

미래세계의 지도자 전도대회 성료 예수믿기로 작성한 고등학생 많아

미래세계의 지도자 초청 전도대회가 지난주(4월9일) 오후1시 본당에서 개최되어 은혜롭게 마쳤다.

2천5백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석한 이날 전도대회의 1부 예배는 윤용규 목사(교육위원회 지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오태희장로(교육위원장)의 기도, 성경 묵 8:26-30, 38-39절 봉독후 이종운 위임목사가 「인간의 조건」이란 제하의 설교를 했다.

다.

축도 이후 제2부 순서로 찬양과 간증, 제3부 음료와 빵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온성대행진 참모회의

시온성 대행진 참모회의 및 기도회가 매주일 오후4시 지휘본부가 설치된 본당 203호실에서 계속되고 있다.



3교구 가족 영성훈련

일시/1989년 4월 21일 오후8시

장소/갈릴리홀

<초대의 글>

3교구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한분 한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사를 기도합니다.

4월은 기도하는 달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엮어가는 계절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3교구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걱정해보고 다져보는 계기가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깨어저가는 각 가정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생각을 모아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실제와 처방>에 관한 특

강도 있는데 오랜동안의 결혼생활을 경험하시고 교인들의 가정생활을 구체적으로 통달하신 강사를 모시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등록하신 가정의 간단한 <간증> 3교구를 빛낸 분들의 <시상> 참석하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행운권 추첨>도 있을 예정입니다.

전가족 식구가 참여하는 축복의 기회에 한분도 불참의 슬픈 연가를 만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하는 날자는 4월 21일 오후8시이며 본당내 갈릴리홀로 모시겠습니다. 1989년 4월 15일

초대자: 3교구 담당교역자
송태근 목사, 구명신전도사
1지역장 박승준 장로
2지역장 김광신 장로
3지역장 김기정 장로
4지역장 오진국 장로
5지역장 노광현 장로

특별논단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2>

장로교 정치조례 문답 161문에 "주일을 지키는 법이 어떠한가? 주일에 모든 영업을 하는 일은 휴식하고 이 날을 완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할지니 번잡한 유흥과 세상 육신에 관한 담화와 사상까지도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이 날에 죄되는 영업을 정지하고 유흥하는 것과 관광다니는 것과 그 익일 소간사를 위하여 출행하는 것과 불신자가 회집하여 유흥하는 처소에 내왕하는 것과 세상 신문을 보는 것같은 일을 예사로 간주하는 자가 많이 있나니 회중중에 만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당회가 권면할 것이며, 순종치 아니하면 책벌함이 가하니라"고 했다.

예배모범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것, 2항에 "위급한 일 외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영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가하니라"고 하였다.

자기를 위해 오락을 일삼는 것은 옳지 못하며 시장을 보든가 하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신령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7. 주일에 위급한 일은 해야한다.

예배모범 1장 2항에..... 위급한 일 외에는 모든 사무를 폐할 것이니라"고 했다. 위급한 일이란 위태롭고 급한 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나 천재지변에 관한 불가피한 사실을 말한다. 박윤선목사는 "주일에 부득이한 일은 생명에 관한 구급사업 외에는 절대로 부득이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크레인>박사가 저술한 「안식일과 인생의 행복」이란 소책자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대가 대전과 고난 중에서도 주일 성수 문제에 있어서 각 군대에 특별위원회를 파송하여 조사 보고한 일이 있는데 이 날에 부득이한 일은 특파원들이 특별히 주의한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① 뜻밖의 일 즉 난리 중 시급히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와 같은 것이요.

② 증기로나 무슨 다른 방법으로 거울에 방울을 계속적으로 덮게 하는 난로에 불을 피

"안식의 축복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다."

우는 일 같은 것이다. 다시말하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수가 아니더라도 불을 꺼야 되고 적이 갑자기 침범했을 때 정당방위로 싸워야하고 사람이 죽어갈 때 급히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8. 주일을 즐겁게 보내야 한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비쳐> 목사는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안식일이 없는 세계는 웃음이 없는 세계요 꽃이 없는 여름이며 돌이 없는 주택이다. 안식일은 일주일동안 가장 기쁜 날"이라고 했다.

시편 118:24절에 "이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9. 주일은 주의 명령이니 굳게 지켜야 한다.

다.

이사야 56장2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다. 그리고 2절과 4절에 보면 "굳이" "굳게"란 말이 세번이나 나온다. 이렇게 거듭 굳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심은 신앙인격이 견실해야 축복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31장 12~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란 말씀이다.

이것으로 여호와께 속한 백성임을 증거하였다. 우리는 주의 택함을 입은 여호와와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표를 지키므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결론

우리 인간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전의 욕심이 더 많으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김차생
(장로·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리가 한가지 꼭 주의해야 할 일은 주일을 범하면서도 이것은 선을 위한 일이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처지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가르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태복음 12장 1~13절,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육과 전도와 심방과 환자 위로 등 선하고 거룩한 일에만 열중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

특히 느헤미야 13장 15~21절에 보면 노동행위나 상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7일중 주일을 축복하셨고, 즉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의 축복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다. 이 축복은 안식의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일을 존귀한 날로 알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들어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리고 땅에서도 기업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기업도 받게 될 것이다.

협력하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교회당 주변을 나무로 푸르게

교회당 주변을 나무로 푸르게 조성키 위한 헌수 헌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헌수운동에 참여하길 교회는 원하고 있다.

지난주간 들어온 헌수헌금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문명애, 이순녀, 성영숙, 홍계순, 조영혜, 고정환, 전경균, 신계성, 김종열, 김민숙, 이슬기, 84-630, 이민화, 이효순, 김규현, 김원태, 김발수, 김경희, 김길순, 송석주, 김지현, 박소희, 박순옥, 신옥희, 자선옥, 주순정, 이경옥, 김미란, 이영숙, 임신자, 권윤정, 이석진, 이성실, 신춘자, 노정자, 안병호, 유국현, 손경수 외 4인, 이용선, 박순봉, 이성원 외 3인, 서정희, 박근열, 유영자, 이병옥, 한영숙, 이정화, 오규자, 박귀순, 이하영, 김용환, 박명자, 최은후, 이정희, 김학기, 명윤진, 김영호, 김문숙, 이연규, 문영희, 이명숙, 윤병주, 손철, 이태규, 장선혜, 하광숙, 백선연, 장원재, 이동정, 여운숙, 민경애 외 2인, 김혜화, 박창빈, 김상식, 이순례, 장경문, 오선희, 이혜숙, 장남희, 황경화, 황동아, 전순순, 남기출, 박광순, 박태순, 김영애, 이상림, 권류용 외, 윤문자, 김영일, 김계수, 고한석, 김순자, 이순옥, 정명자, 최종식, 김경열, 김경순, 김종만, 이병선, 신귀옥, 서귀순, 정운석, 박호영, 강정희, 지영식, 김정선, 이길자, 이일성, 권용훈, 손세종, 명승순, 김봉옥, 최정자, 이무강, 윤성철, 김진환, 김성태, 박노봉, 김복련, 이명조, 전순임, 황하규, 안금자, 안유리, 안유미, 김희선, 박명숙,

김광남, 고정자, 이종성, 김유희, 김상기, 한병희, 이창열, 김용설, 김정호, 신경희, 임낙준, 이미영, 박효순, 김형중, 임정희, 정창원, 이기용, 최봉숙, 김계순, 허인숙, 박종민, 신수옥, 홍복기, 김중선, 강진숙, 조정옥, 김영순, 박창순, 이정숙, 김종만, 한광조, 강은선, 이부용, 강명자, 최재순, 최홍현, 주영자, 임옥환, 방군자, 박창서, 김순배, 이윤남, 김옥경, 김성진, 김인순, 조복준, 최종배, 유병옥, 이덕희,

이인자, 송영남, 남기태, 전인한, 이상호, 오동진, 한상운, 김옥희, 윤성원, 최철수, 윤진우, 윤진옥, 박성명, 문정숙, 김현환, 김순이, 오숙현, 서상옥, 신상수, 박명석, 김택선, 남기수, 김계순, 이영미, 주민경, 임복철, 이한하, 정재균, 조숙기, 김미자, 진정혜, 박종국, 최규자, 임보임, 열미숙, 김경애, 김종성, 임희춘, 이연순, 김광철, 이종원, 김문정, 송정희, 홍순복, 안순이, 김태현, 이금옥, 김금순, 강준희, 남승현, 장세훈, 김다수, 김준옥, 김광조, 오경애, 이혜자,

남기태, 이정자, 송시은, 권임정, 김정숙, 김세홍, 김홍찬, 권명희, 이관규 외 3인, 고남관, 필기복, 이지철, 김창기, 최선자, 마도원, 이종국, 이귀진, 오혜숙, 이관섭, 무명 43인, 천병희, 황주옥, 이동진, 한종호, 고종현, 고종호, 고승균, 고유순, 김도현, 장선희, 박숙경, 허영철, 이근호, 이현임, 이연주, 권태선, 김필수, 김춘희, 임옥균, 김연근, 정선화, 김종규, 김성신, 강계영, 황미정, 김명배, 황선갑, 박영희, 김준남, 김영남, 김규자, 박경열.

• 자랑스런 우리구역

"모이기 힘쓰는 우리 협력구역"

작년 11월부터 모이기 시작한 우리 협력 구역(1교구 3지역 역삼11, 12, 13, 14구역) 예배는 처음에는 10명 내외의 작은 가족이 모였으나 모이기 시작하지 불과 몇달 안되는 사이에 25여명의 대가족으로 채워주시고 날로 번성하게 하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 모든 것은 3지역장 오정현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4개 구역장 및 구역원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매월 1회 마지막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드리는 협력구역 예배는 1부 예배와 성경공부(다락방공부), 2부 친교의 시간으로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다. 서로 자기집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즐거운 실랑이를 거듭하는 동안 날이갈수록 더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 엔더슨씨 가정에서 협력구역예배가 드려졌다. 정돈하고 손수 맛있는 케익을 만들고 부인과 함께 한 미식정찬을 장만하여 우리들과 같이 들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온지 2년이 채 안되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 그저 감사하고 좋다

고 늘 싱글벙글하시며 이 모임이 인연이 되어 영어예배 성가대원이 되어 열심히 하나님께 찬성하고 있다. 지난 1교구 가족 연합 수련회에도 우리 구역식구들은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단합됨을 보였고, 이 협력구역 모임을 통해 그동안 남편들의 믿음을 애타게 기도하던 자매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이 없던 4가정의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지금은 남전도회에도 가입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이 지방에 있는 분과 야근이 많은 직장에 계신 분들이 이 모임에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에 직장을 달라고, 야근근무가 없는 좋은 직장으로 옮겨 달라고 우리구역 식구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부성(집사·1교구3지역 협력구역장)